



2002년 부터 합성수지 부담금제도 폐지

자발적 협정으로 전환

권태문/ (사)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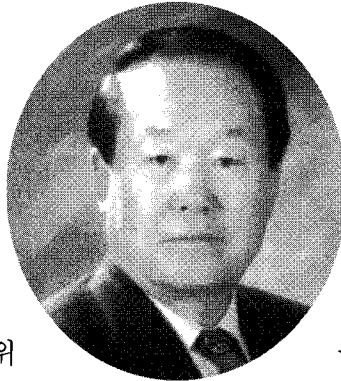
개 종 환경문제가 날로 심해지면서 재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플라스틱의 경우 낮은 재활용률, 일부 제조업들의 과도한 포장 물질 사용, 불필요한 2차 포장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사)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가 지난 2월 정기총회를 갖고 권태문 (주)팔기 대표이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는 관련업체의 권익을 도모하고 플라스틱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 관련사업을 촉진하는데 힘쓰고 있다.

권태문 회장은 “우선 저를 믿고 맡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플라스틱은 철, 알루미늄, 구리, 목재, 펄프 등 천연자원의 대체소재로 사용되어져 귀중한 자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친환경적 소재이다. 또한 가볍고, 강하며 녹슬거나 썩지 않고 단열성, 전기절연성, 투명성, 착색성, 위생성, 경제성 등이 뛰어나 폭넓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거기다 플라스틱은 사용 후에도 열에 의해 쉽게 녹기 때문에 재생제품으로의 재활용이 용이하고 원자재가 석유로 되어 있어 석탄 등의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되는 등 마지막 하나도 남김없이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물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잘못된 환경정책으로 말미암아 재활용이 저조하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규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잘못된 과제를 개선시켜야 할 필요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권태문 회장은 “원료생산자,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 플라스틱 제품 사용자 등과 연계하여 기초자료 조사, 범국가적 재활용 방법(M.R, T.R, C.R 등)과 재활용 목표율 책정, 각 주체별(원료생산자, 제품생산자, 제품사용자, 지방자치단체)역할분담, 전국적인 재활용 시설 규모와 자금조달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라며 회장으로써의 운영계획을 밝혔다.

또한 “식품, 육류, 채소류, 생선류, 가공식품 등을 보관, 운반, 판매, 조리하기 위해 사용되

플라스틱의 효율적 이용

재활용 사업추진

는 PSP 용기는 그 유용성,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이 인정되었으나, 사용 후 폐기되는 대부분의 용기들은 재활용이 안되고 단순매립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로 인해 매립장의 수명단축과 자원의 낭비는 물론 마구 버려져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용기를 생산하는 자가 주축이 되고 용기사용자, 소비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등에서와 같이 PSP용기를 재생원료화, 유화환원, 고품연료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사람과 사람의 신의를 가장 중요시하는 권태문 회장은 "모든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분리배출 협조, 지방자치단체의 수집 압축 등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임승차자에 대한 강력한 채택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기생산자가 주축이 되어 비용부담 등을 강구할 것이나 원료생산자, 제품사용자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관련사업자의 일부 업무를 분담할 것입니다. 또한 무임승차자에 대해서는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가 생산하는 용기에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알리는 표시 즉 마크표시

를 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라며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주)팔기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권태문 회장은 경영 역시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지역의 불우한 노인들을 보살피는 것은 물론, 일용직을 고용할 때도 지역부인회를 통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 꾸준히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또한 개방적인 업무 수행과 신뢰, 화합을 가장 중요시하며 항상 동종업계에서 선도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봉사단체인 로타리회의 지역대표와 한국포장협회 이사로 활동중이기도 한 권태문 회장의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 회장으로서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ko]

권해진 기자

인물 및 업체 소개
월간 포장계 편집실
(02)835-9041